[31기] 맘시생/생유예/노64.35(김에스터), 인67.39(김유미), 행 59.02(문일), 경57.97(김유미) | 합격수기

여자꿈드리 | 조회 560 | 2022/12/21 17:54:27

* 블로그에 작성해 두었다가 글씨만 복사한 수기로, 첨부한 그림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 링크 타고 오시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kimnorm4/222954244626>

* 인생기록/블로그 업로드용으로 작성했던 수기로, 평서문으로 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신.. 블로그에서 복사했더니, 제목을 수정할때마다 에서나서 글이 잘려요..ㅠㅠ
혹시 성의없는잘린글(?)을 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랑 다음카페는 그닥 호환성이 좋지 않네요.. 인사점수를 오타내서 두번 수정하는 과정에서 글이 두번 날라갔어요..

Prologue. 기본 정보

요약

1.총 수험기간 : 2020.11.1~2022.09.03

(1년 10개월 + 부진정 공부기간 2개월 = **총2년**)

→ 영어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다

→ 부진정 공부기간 : 1차 강의를 끊어놓고 보지를 않았다.

2.개인정보 : 맘시생, 서울 4년제 경영학전공, 30대 후반

노무사 시험 진입계기 : 하 많 하 많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할 이유가 생겼다. 출산을 했고 마침 육아휴직이라는 기회가 생겼다. ~~귀화인줄~~ 알았다. 전업보다는 공부시간이 확보가 안되겠지만, 직장병행보다는 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진입했다. 다행히 붙었지만, 애가 아빠만 찾는다는...

시험보면서 가장 많이 한 말

- ①난 내 머리가 좋은줄 알았는데....
- ②넌 이거 하지마..
- ③손을 잃었어
- ④떨어지면 어떡하지...
- ⑤제발 나좀 붙여줘...
- ⑥아니 어떻게 또 까먹지?????

Section.1

시험점수와 과목별 공부방법

제멋대로 공부방법

나는 강사님들이 시키신 공부법을 안따르고 마이웨이로 공부했다.

그래서 참고가 안 될 수 있다. 그냥 인생기록용 수기...

- **1차 : 평균 77.75** (1-2차공부비율 : 3:7)

1차는 공부방법이랄게 없었다. 그냥 읽고 문제 푸는게 전부였다. 강사추천이라면, **민법 김묘엽강사님**을 추천한다. 쉽고 재밌게 가르치신다. 법알못에게 큰 힘이 되었다.

다만, 경영학과면 경영학개론을 / 경제학과면 경제학을 / 법학과면 민법을 날로 먹을 수 있다. 학부 때 많이 놀았어도 베이스를 무시할 수는 없다. 졸업은 했잖아. 다만, 2차는 다른 이야기...

- **2차** (57.67 → **62.43점**, 4.76점 ↑)

올해 불합한 생동분께, 혹은 이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께

과목별 공부시간을 타이머로 켜 후(열품타 등), 총 시간과 점수비율 계산을 추천한다. 나는 2년의 수험기간 정리용으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동차때나 유예때나 과목당 효율이 비슷했다. 결국 **쉽게 다가오는 과목이 존재한다**는 것. 분석결과 나는 인사체질이였다. 동차 인사 점수가 워낙 낮았어서 재능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만큼 시간투자도 안했더랬다. ~~진작 분석했다~~ 라면 경조에 투입했어야 할 것을...ㅠㅠ

수험가의 공부법이 맞지 않는 분께

잇츠미!!!! ①전과목 개인 서브노트를 만들었고, ②두문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통암기를 했으며, ③공부 양 기준이 아니라 공부 시간 기준으로 공부했고, ④형광펜 활용을 하지 않았으며, ⑤판례/개념암기를 듣지 않았고, ⑥인사/경조 개념암기를 하지 않았고, ⑦회독수 늘리기 보다는 Deep 암기를 택했으며, ⑧이 책 저 책 번갈아가며 보았고(다만 같은 강사님 것), ⑨타 강사 모의고사를 풀어보았다. ~~하지말란건 다 해~~

이 중 **어떤 방법은 효과를 봤고, 어떤 방법은 후회를 했다.** 다만, 결과론적인 이야기. 수험가의 공부법이 맞으시는 분은 그냥 따르시기를...

①전과목 서브노트 : 추천/비추 반반 - 개인적으로는 효과를 보았다.

장단점이 극명하다. 맞는 분들에게는 추천한다. ~~다만 대부분이 안맞을 것이다.~~

- 장점

- 정리과정에 공부가 된다(1번 정리에 3회독 효과가 있는 것 같다)
- 눈에 잘 발라진다 (내가 한거니까..)
- 막판 회독에 적당하다 (글씨가 책보다는 적기 때문에...)
- 들고다니며 보기 좋다 (이건 사용하는 틀에 따라 캐바캐)

- 단점

- 종이로 쓰는 경우 포스트잇 스티커북이 될 수 있다. (3기에도 추가할게 생기는 놀라움)
- 이해를 못한 채로 정리하는 경우 나중에 읽으면 뭘 말인지 모른다. (이상하게 암기하는 경우도 생김)
- 시간투여가 심하다. (정리식 공부가 안맞는 경우 시간낭비일 뿐...)
- 가끔 책을 그대로 베끼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이렇거면 그냥 책을 보자)
- 모든 것을 담으려는 경향이 생긴다 (사족덩어리...)

- 꼭 만드는 경우 : 아이패드 강추

- a. 타이핑/손글씨 중 편한 방식 택일 가능
- b. 필요한 내용 검색 가능 (특히 인사는 방대하다..)
- c. 수정 추가의 용이함 (시험 2주 전까지 추가할 내용이 생긴다. 페이지는 무한증식한다)
- d. 마지막 2주정도 남기고는 그냥 인쇄 추천 (안그러면 눈알이 빠진다. 블루라이트 차단안경 무쓸모..)

②통암기 - 두문자가 더 안외워지면 추천 - 두문이 싫어서 통암기 한게 아니야...ππ

나는 두문자의 저주에 걸렸다(?) 두문자로 외우는게 더 안외워졌다. 결국 통암기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전과목 통틀어 두문자로 외운게 30개도 안된다. 내취상시장, 개불권장남, 19기 기수유, 뭐 이런거...

그나마 저 30개도 엄청 짧은 두문자가 대부분이다. 평생사반 해유근 이런거.. 그냥 두문이란 안맞았다. 두문이란 판례가 따로놀았다. 나와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 믿고 글을쓴다. 적기를 바라지만... **두문이 안맞는 경우 남들보다 이해에 더 집착해야 한다.** 판례의 경우 사실관계를 열심히 보았고, 인사의 경우 큰 그림을 보려 부단히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두문이 잘 맞으면 통암기같은 무식한 짓 하지말자.ππ** 과목별 통암기 비법(?)은 아래에 따로 적겠다.

③시간 기준 공부법 - 집합만 잘하고 통계 못했던 분들 추천

나는 범위 기준으로 해버리면 뒷부분을 대충 보는 타입이었다.(빨리 자고싶어서) 이런 타입은 시간으로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앞서 서술한 나의 **시간대비 효율을 먼저 분석해보기를 추천한다.** 동차생 죄송...

④형광펜 목차작업 비활용 - 말랑한 두뇌의 소유자에게 추천 - 난 그냥 색칠 공부였을 뿐

계속 무형광펜(?)을 고집하다가 하도 남들이 다 하길래 2차 한달전에 해봤다. (아이패드 서브노트 동영상 참고). 즐거운 색칠공부였다. 머리에 하나도 남지 않았다. 물론 남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만 나는 목차를 외우지 않는 타입이어서, 남들 다 하는거 나도 해봤다! 의 경험으로 만족했다. **그냥 서브노트**가 예뻐졌다. 자신이 말랑한 두뇌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면 형광펜 활용을 꼭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⑤판례/개념암기 음원 미청취 - 공부/휴식의 경계가 분명해야 하는 경우 추천 - 난 쉴 때는 멍때린다.

보통 무의식공부(?) 용으로 많이 트는 것으로 들었다. 즉, 쉬는 시간에 나의 무의식에 암기를 맡기는(?) 공부법으로 주로 활용되는데, 나는 쉬는시간에

음원을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다운을 열심히 받아놓고 사용을 하지 않았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다 안해놓고 할 말은 아니...

⑥인사/경조 개념암기 안함 - 경조는 꼭 하기를 추천한다 - 강사님 말씀 잘 듣자.

인사/경조 모두 개념암기를 하지 않았다. 이해만 하려고 했던 것 같다. 모의고사를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모답을 참고해 주세요" 라는 첨삭이 자주 달렸다. 그래도 나름 모의고사 상위권이라는 생각에 끝까지 개념암기를 하지 않았고, 경조 점수를 보고 후회했다. 인사는 두뇌의 말랑함이 개념암기의 부실함을 커버한다면(목차구성, 흐름 등) 경조는 개념, 개념, 개념. 아.. **김유미 노무사님**이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다른 분들 수기를 보면 인사도 개념이 중요한 것 같다. **강사님이 시키시면 말 잘 듣자.**

⑦적은 회독 수, 깊은 암기 - 두문이 안맞는 경우 추천 - 스트레스는 덜

이건 통암기이기 때문에 더 썼던 방법이다. 다만 남들이 회독 수 올린다는 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스멀 스멀 올라온다. 시험을 1주 남기기 전까지 내 방법을 고수했다. 빠른 회독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⑧이 책 저 책 번갈아 보기(같은 강사님) - 불의타 대비에는 좋음

보통 한 책을 여러번 회독하는데 나는 기본서, 서브노트(강사님), 그에 기반한 내 서브노트, 따로 정리한 암기장(A7 사이즈) 등을 내키는대로 회독했다. 나의 경우에는 한 책을 계속보면 자리가 외워져서 고착화 되는 경향이 생기는 편. 고착화를 막기 위해 일부러 순서도 뒤집어가며 읽었다. 결과적으로 생각지 못한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불의타가 없었다는거..

⑨타 강사 모의고사를 풀어보았다. - 여러분이 선택한 쓰앰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신중하게 선택한 강사님의 컴팩트함, 순수 불안감 등을 이유로 시험을 한달 남겨두고 타 1타 강사님의 2,3기 모의고사를 전부 풀어보았다.(문제읽고 목차구성한 후 모답읽기 수준) 생각보다 시간 투여가 엄청났고, 개인 서브노트에 덕지덕지 기억도 못할 정보가 붙었다. 결국 시험은 내가 원래 듣던 강사님들 스타일로 훈련된 터라, 타 강사님 모고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냥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 시간에 잠을 더 잘걸...~~

과목별 공부방법

1.노동법 (김에스더 → **김에스더**, 58.19 → **64.35점**, 6.16점 ↑)

→ 공부시간대비 효율 : 89.6% (100미만 : 저효율 / 100이상 : 고효율)

→ 과목별 환산점수 (노1 68.15 → **61.70**, 6.45 ↓ / 노2 48.23 → **67.00**, 18.77 ↑)

~~어떠나 세상에 동차때 점수 무슨일이야..?~~

→ 환산점수는 단순 비율계산으로 실제 세부 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사선택의 이유

유튜브에서 조문특강을 들어보고 선택했다. 법알못이었고, 다른 강사님들 강의보다 에스더 노무사님 강의가 <이해>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목차를 암기하지 말라고 (천번쯤)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개취였다. 다른 강사님에 비하여 <사실관계>를 많이 알려주셨고, <논점의 정리>나 <사안의 적용>의 체계성, <판례의 키워드>를 강조하며 수업해주셨다.

동차→유예 때 강사 변경이 없던 이유

동차때 노1 환산점수(68.15점)을 보고 확신을 얻었다. 비록 지금의 나는 암기가 부족하여 노2에서 말도 안되는 점수(환산점수 48.23)을 얻었지만, 강사님의 방식을 잘 따르면 합격할 수 있다! 하고 말이다.

장점. ① **이해기반의 노동법 학습**에 적합한 강사님이다. 단순암기가 아닌 판례 키워드, 구조화, 사실관계 설명 중심의 강의를 하신다. 법알못에게 적합한 0기, 1기 강의를 하신다. ② 모의고사 문제가 타 강사님에 비하여 시험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문제풀이 연습을 할 수 있다. ③ 답안지 작성 표본이 현실적이다. ④ 문제가 쉬울 수록 고득점이 가능하다.(현출의 체계성, 논리성 위주의 강의) ⑤ **최근 3개년 신들린 적중률을 자랑한다.** (모두 A에서 나왔다) 올해 기출문제 중 도급인사업장에서 쟁의행위는, <대체의도>를 집고 넘어가야 함을 강의까지 해주셨다. ⑥ 버려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신다. (무익적 기재사항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어떤 경우에 요약해도 되는지 등) ⑦ 서브노트 구성이 컴팩트 하지만 알차다. 진짜 여기에서 시험이 나온다. 괜한 불안감에 나 혼자 다른강사님 모고 풀어보고 내용 추가하고 암기량만 늘렸는데 그럴 필요 없었다. ⑧ 육각형 모양의 그래프를 매 모고마다 제공해 주신다.

단점.

① 대형강의에 비하여 표본이 적은 것은 심리적 불안요소이다. ② 침삭해주는 분이 예의 없게 코멘트를 남긴 적이 있어서 컴플레인한 경험이다.(이 부분은 당일날 곧바로 사과하고 해결해주셨다. 다만 안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강사님 말고 침삭자에게...) 그 후 이 부분은 개선되었다고 믿는다.

동차때 공부법

사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고민했지만, 우선 적어본다.(머리를 싸매고 기억을 돌이켜보자) <공통사항>으로 시간에 매우 허덕였다. 전과목 모두 0기, 1기, 2기(인강) → 3기(실강/실영상)을 수강했으며, 시간에 치여서 3기 중 반까지 2기 인강 진도를 다 빼지 못했다. 2기 연습문제도 3기 복습을 하는 도중에 풀어보았으며 심지어는 다 풀어보지도 못했다. 3기가 될때까지 시험용 법전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답안지는 3기때 처음 만져보았다. 3기 모고는 빠짐없이 제출하였다. 3기 모고 답안 해설은 복습할 때 통으로 외웠다.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강사님들의 모고 답안을 외우는게 최선이였다. 시험을 앞두고 점점 불합격이 가시적으로 보였고, 그래도 정신줄 부여잡고 끝까지 공부했다. 마지막에 갑자기 많은 것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고, **2달이 더 있었으면 붙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쉬웠다. → **부진정 공부기간이 2개월인데, 이 기간에 공부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때늦은 후회가 많이 들었다.

노동법의 동차생으로서의 공부법은, <서브노트(2기교재)>의 판례를 암기한 후, <사례노트(2기교재)>의 동일 쟁점을 문제풀이했다(답안지에 현출했다.) B+급부터는 과감히 버리고 A급만 공부했다. **에스더노무사님의 적중률이 높아 노동법에는 A급만 출제되었다. 노1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던 비결**인 것 같다. 시간의 부족으로, 앞서 서술한 방식으로는 1회독을 겨우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유예때 공부법

① 단어장을 만들었다.

화장실 갈 때, 밥먹을때, 실강수업으로 인해 이동할 때 시간을 아끼고 싶었다. 허리나 목이 너무 아파서 서있을때도 항상 들고 있었고, 몸이 찌뿌둥하여 걸을 때도 들고다녔다. 노동법은 행정보다 판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외우고 또 외웠다. **노1, 노2 모두 B급 이상 전 범위의 판례**를 적었다.

② 실강 수강

육아맘이었기 때문에 주말에 집에 있으면 공부를 하기보다는 육아를 하게 되었다.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1기부터 3기까지 all 실강을 수강했다(강사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0기는 수강하지 않았다). 덕분에 남편은 22년 1월부터 8월까지 주말을 반납해야했다. 남편의 숭고한 희생으로 합격했다.

출석률 : 1기때 몇번 결석했고, 2~3기는 전부 출석했다. 모고는 100% 제출했다.

③복습 위주의 공부법

동차때와 마찬가지로, **당일 모의고사의 강사님 모답은 통으로 암기한 후 백지복습**을 하였다. 전주 모의고사의 경우 **나의 답안과 최고답안의 차이를 비교**하며 꼼꼼히 살펴보고, 최고답안을 많이 **벤치마킹**했다. 첨삭자의 코멘트 사항은 개선하려 노력했다. 직전 주 수업 범위는 정독을 했다.(1~2기) 프린트로 진행되는 3기의 경우, 키워드를 개인 서브노트에 옮겨 적었고, **프린트물 목차에 따른 실제 답안을 백지복습 식으로 현출**해 보았다. 시험이 한달 남을 때까지는 포섭도 꼼꼼하게 해보았다. 포섭의 경우는 판례처럼 100% 현출하기보다는, 포섭 목차를 구성한 후 머리로 내가 쓸 말을 되뇌이며 넘버링하는 연습을 주로 했다.

이렇게 하면 연습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평소 실력으로 보았다.

(가끔 점수와 등수가 처참..) 장점이라면, ①전범위 모의고사로 변경되는 시점에 충격을 받지 않으며, ②오히려 점점 점수가 우상향 한다. ③모의고사 점수가 실제 실력을 반영할 수 있고, ④전범위가 되는 3기에 등수가 오른다. 단점은, ①범위가 있는 시절 연습 위주로 공부하는 분들에 비하여 등수가 낮을 수 밖에 없다. 멘탈관리가 안될 수 있다. ②혼자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쉽다. 개인적으로는 <점수를 위한 연습> 보다는 <시험을 위한 복습>을 택하는 것이 더 큰 장점을 가진다고 여긴다.

④이해 위주의 공부방식

판례를 끊임없이 암기하되, **판례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판례의 경우 판례를 검색하여 전문을 읽었다. 어떤 흐름으로, 어떤 이야기를, 어떤 목적에서 하려고 했는지 이해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시간을 엄청 쓰게 된다. 다만 Legal Mind 를 기르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다.

⑤질문창구의 적극활용

내가 실강을 수강한 이유이다. 궁금한 점을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고 미루어 두면 이해를 못한 채로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다.(동차 때 인강을 들으며 느낀 점) 질문 수준이 낮은게 부끄러워서 질문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돈을 주고 수강신청을 하는 이유는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고 믿고있다. 1기때는 정말 엄한 질문을 많이했고, 뒤로 갈수록 덜 엄한

(?) 질문을 할 수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에스더쌤은 내가 일관적으로 엄한 질문을 했다고 기억하실 수도 있겠다. 주관적인 문제이므로..)

⑥시험 한달 전 부터 노동법에 시간 투자

사실 노동법이 가장 자신없는 과목이었다. 모의고사 점수의 안정성이 가장 떨어졌기 때문이다. 1~3기 통틀어 각 1회씩 <참 잘했어요 집단>에 들었다. 총 3회 밖에 못 들어갔다는 소리이다. 첫장에 이름이 항상 있기는 했지만, 2기때는 1회-참잘했어요집단, 2회-10위권, 3회-20위권, 4회-30위권 이런식으로 매 회 10등씩 떨어졌다. 자신감이 생길래야 생길 수 없었다. **시험을 한달 앞두고 하루 공부시간의 절반을 노동법 판례 암기에 투자했다.** 회독 수를 늘리는 암기보다는 **현출하며 완전히 외우기**를 시도했다.(마지막 1달 2회독 함) 모의고사 점수가 낮은 때에도 사안의 적용부분은 만점을 받거나, 심지어는 최고답안보다도 사안 점수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서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판례만 외웠다.

2.행정쟁송법(문일→문일, 60.98 → 59.02점, 1.96점 ↓)

→ 공부시간대비 효율 : 101.7%

강사선택의 이유

행쟁은 너무 생소했고, 너무 이론적이지 않게 이해를 시켜주시는 강사님을 찾게 되었다. <그림으로 보는 행정쟁송법>을 수강한 후 내가 찾는 강사님이라는 생각이 들어 문일변호사님을 선택했다.

동차→유예 때 강사 변경이 없던 이유

동차때 유일하게 60점을 넘긴 과목이었고, 강의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기로 결심했다. 2번째의 2차시험을 준비하며, 문일강사님이 가장 **컴팩트한 행쟁 강사님**이라는 점도 알게되었다. **굳이 다른 강사로 변경하여 공부 양을 늘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는 노동법 에스더 강사님 수업을 들으며 행쟁 문일 강사님 수업을 듣는 것이 답안지 작성 방식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①서로 너무 차이가 나면 법알못인 나로서는 혼돈이 오기 때문이며, ②두 분 다 각 과목에서 컴팩트한 분량을 최대한 경제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장점. ①**공부양이 줄어든다.** 그 만큼을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다. (그게 추구하는 바라고 말씀하셨다.) ②**컴팩트하다.** 그러나 양이 적다고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지는 않다. ③수업을 일찍 끝내주신다. 학원가 장돌뱅이(단과반으로 학원 돌아다니기)를 하는 경우 정말 가뭄의 단비같다. ④모의고사가

실제 시험에 가깝다. ⑤논리적인 목차구성을 하신다. 행쟁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 수록 목차암기가 필요 없어진다. 가끔 너무 깔끔한 답안구성에 감동하기도 했다. ⑥초시대는 약술집이 너무 좋았다. 약술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워 줄 수 있다. ⑦3기때 타 강사님 모의고사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강의 해주시는게 알차고 좋다. ⑧특강으로 중요 목차와 핵심 키워드 및 서술의 흐름을 설명해주시는데, 특강집이 너무 좋다. 노트방지용으로 유용하다.

단점. ①양이 적어 도리어 불안감을 느끼기 쉽다. 나도 막판에 다른 강사님 모고를 엄청 풀었다. 의미는 없었지만...②(단점이지만 장점이 될 수 있는 강사님 특징.) 공부 안하고 다짜고짜 질문하는 것을 극혐하는것 같다. 예를 들면 영어공부를 하는 사람이 사전도 안 찾아보고 "have는 무슨 뜻인가요?"라고 물으면 "사전 찾아보고 오세요"라고 대답한다. 진짜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덕분에 다들 공부하고 나서 결론을 물어본다. "have는 가지다 라는 뜻이지만 과거분사에도 사용되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묻게 된다. 산파술... 그리고 질문 자체에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는 경우 하나 하나 상세하게 대답 해주신다. 그러나 질문 할 때는 항상 혼나는(?)걸 각오하고 물어보아야 한다.

동차때 공부법

노동법과 같다. 모고를 통암기했다. 이때는 모답은 보지 않았다.(노동법도 동일) 보는 눈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다. 모고 점수가 35점수준이었고(100점만 점..) 심지어는 위로의 코멘트가 달렸다.(포기하지는 말라는..) 너무 아찔해서 마지막 1달동안 행쟁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하했다.

유예때 공부법

① 단어장을 만들었다

내가 들었던 문일강사님은 판례를 강조하지 않았다. 물론, 동차때 판례암기가 거의 되어있지 않음에도 6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던 과목이기에 방향성 면에서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는 유예였고, 여유가 있다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여겼다. 실제로 이번 시험 2문 소의이익 문제는 판례를 <어느정도 현출>해야 하는 문제였다.

②실강 수강 ③복습 위주의 공부법

→ 노동법과 동일하다.

④이해 위주의 공부방식

동차때 보다는 여유가 생겨(유일하게 60점을 넘은 과목이라는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다.) 강사님 사례집의 목차구성의 이유를 고민하며 공부했다. 포섭

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목차 순서를 조정해보며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답안구성을 연습했다.

⑤ **논탈이 우려되는 쟁점의 반복학습**

기속력-기판력, 선결문제-이송-기판력 등 자칫 잘못하면 논탈이 나는 쟁점 위주로 <함께> 공부했다. 행쟁은 이해가 임계치를 넘어가면 답안지 수준은 다 비슷한 것 같다. 다만 논탈은 정말 한순간이다. 실제로 나는 이번 2차때도 부분논탈을 했다. 논탈만 없으면 60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 생각하여, 논탈을 하지 않기 위한 훈련을 위주로 공부했다. 결국 ~~엄한 데에서 논탈했자~~ ~~만...~~

⑥ **기본서 요약(개인서브노트) 위주의 회독**

다른 과목도 개인 서브노트 회독을 했지만, 행쟁은 유독 개인 서브노트 위주로 회독을 했다. 왜냐하면 동차때, 문제풀이에서 잘 다루지 않지만 <기본기>가 되는 내용도 썼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이다. (동차 시험에서 '병합의 종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주위적, 예비적 병합만 제대로 이름을 쓰고 나머지 두개는 이름을 만들어썼었다.) 올해 시험처럼 행쟁이 너무 쉬운 경우 <기본기>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부분논탈로 59점이자~~ ~~만...~~

3. 인사노무관리(강사명비공개 → 김유미, 55.87 → 67.39점, 11.52점 ↑)

→ 공부시간대비 효율 : 126.4%

강사선택의 이유(강사변경의 이유)

동차시험때 배운 적 없는 이론이 나왔다. 내가 들은 강사님은 VRIO(VRIN)이 기본서에 없었고, 3기 모의고사에서 스치듯 1문단 정도로 가르쳐주었다. 즉, 내가 아는 VRIO의 지식은 딱, 한문단 짜리였다.(심지어는 자원기반관점이라는 단어 자체는 알지도 못했다. 비슷한 거길래 비벼썼는데 제대로 비벼쓰기는 했었다. 아는게 한문단이어서 그렇지...) 또한 50점 자리 논술 문제는 평가센터법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혀 쓸 수가 없었다.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강사명을 비공개 하는 이유는, 현재 2차 강의를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100점 배점중에 50점을 <전혀> 모르겠는 문제가 나왔다는 충격으로 한동안 정신을 못차렸다. 경영과목 특성상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31기 시험이서도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올 것만 같아 자신감을 많이 상실했다. 고민하던 와중에 현직 노무사인 친구가 **김유미 노무사**님을 추천해주었다. 추천의 이유는 **어떤 불의타도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강사님이라는 점이였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0기 인강을 결제했다. 1타강사로 이미 유명하신 분인건 정말 나중에 알았다...

장점. ① 우선 <구성력>을 강조해주셨다. 2기때 모의고사는 구성력을 보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셨는데 그 점이 <논술문제의 출제의도 파악>연습에 큰 도움이 되었다. 올해 인사 고득점의 큰 열쇠가 되었다. ②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은 혼자 있는게 아니라 **관련 이론과 끈끈하고 유기적인 연결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엮어 쓸 수 있는지 예시**를 많이 들어주셨다. 보통 이런 예시는 0기, 1기에 많이 들어주셨다. ③2~3기 **모의고사 및 보충문제의 다양한 구성**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 두 모의고사를 합치면 거의 책 한권이 나온다. 거의 빠진부분 없이 촘촘하게 모든 이슈를 한번씩 현출해볼 수 있었다. ④대형강의 이기 때문에 나의 위치파악에 도움이 된다. ⑤한결같은 열정과, 질문에 대한 꼼꼼한 답변. ⑥왠지 모르게 따르고 싶은 신뢰가는 말투와 분위기. → 약간 <피리부는사나이>같으시다. 본인은 피리만 불었는데(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수강생들이 우르르 멘토로 모시며 따라다니는 느낌. 강사로서 엄청난 매력이고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멋있다. 따라하고싶다. 내가 바로 짝찬 ⑦**모의고사 첨삭 관리**가 훌륭하다. 대형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검수를 일일이 해주시고 직접 점수를 적어주시고 문항마다 합격실력/감점사유 도장을 찍어준다. 최고답안 후보까지 오르는 경우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신다.

단점. ①(이건 프라임 단점) 단과 수강신청하기 너무 빠세다. ②(이것도 프라임 단점) 자리가 너무 뻑뻑해서 들고 나기 정말 힘들다. 대형강의라 꼭차서 더심하다. ③이번 시험 3문이 기본서에 없었다. 강의중에 언급하고 넘어가시킨 했다. 다만, 불의타를 만난경우 뻘뻘하게 유사개념을 쓰도록 훈련시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무노조 이론으로 밀어쓰면서도 그게 맞을줄 알았다.(3문 점수는 나쁘지 않았다.)

동차때 공부법

인사는 동차때 가장 적은 시간을 공부한 과목이다. 엮어쓰기가 가능한 면이 있었고,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들어 써야지 하는 건방진 마음이 있었다. 다만 모의고사 복습과 암기는 철저하게 했다.

유예때 공부법

① 개념도식 메모리카드의 활용

0기 강의 수강생에게 개념도식 메모리카드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었고, 좋아보여서 샀다. 책은 셀프로 가위질 하거나 인쇄소에 돈주고 잘라달라고 하면

된다. 나는 셀프로 가위질 하는 방식을 택했다. 집중이 깨질때마다 가위질 하며 멍때리기 하는 용으로... (자를 때 마다 왓지모를 성취감이..) 인사수업이 있는 날마다 들고 다니면서 읽었고, **마지막에 회독 수를 올릴 때도사용**했다. 개념도식 메모리카드에 있는 모든 그림을 모양자를 활용하여 한번 이상씩 그려보았다. 인사관련 이론에 도식이 있는 이유는 멋져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론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이 점을 도식을 그려보며 느끼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생겼고,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부분도 생겼다.

②실강 수강

기본적인 내용은 앞선 과목과 동일하다. 다만 인사는 강사변경이 있어, 0기는 인강으로, 1~3기는 실강으로 수강했다. 1타 강사님이시기 때문에 단과반은 실강 수강신청이 매우 어렵다. 프라임은 실강수강신청이 열리는날 홈페이지가 다운된다... 전 GS 수강자에게 수강신청 특혜가 있지 않다. 하여, 콘서트 표 사듯이 수강신청을 했다.

③복습 위주의 공부법 : 앞선 과목과 동일하다.

④이해 위주의 공부방식

법학과목의 이해 방식과 비슷하면서 다르다. <구성력>을 가지기 위한 초석인 점에서는 동일하나, 법학과목은 디테일을 불러온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면, 경영과목은 <숲>을 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학개평보유자의 각각 개별적인 부분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인사과목이 <시스템이론>과 가깝다고 생각한다. 비정형적이고, 시시각각 변하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은 분명 존재한다. 이 점을 이해해야 문제가 잘 풀리는 과목이다. 때문에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이론 그 자체>보다는 <배경>과 <인사시스템에의 접목> 부분을 같이 고려하려 노력했다. (실제 문제도 이런식으로 나온다.)

⑤질문창구의 적극활용

인사는 두뇌가 말랑말랑해야 하는 과목이고, 그만큼 문제가 비정형이어서 질문할 일이 너무 많이 생겼다. 때문에 더더욱 실강 수강신청에 집착했다.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쉬는시간이 되면 달려나가서 질문했다.

⑥마인드맵 그려보기

김유미강사님은 1기가 끝나고 2기가 되기 전 방학에 마인드맵을 그려보라고 숙제를 내신다. 이 때 밖에 시간이 없다며... 인사관리는 엮어 엮어 쓰는 과목이니깐 도움이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일주일 꼬박 걸렸다. **장점**은, ①자연스럽게 1회독 하는 효과가 있고, ②생각보다 서로

서로 많이 엮인다는 것을 알게되었으며(그림 속 선들은 서로서로 연관된 이론끼리 연결시켜 놓은 것이다.), ③전체를 포괄하는 이론 몇개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었다. 단점은, ①예쁘게 그리는데에 집착하게 된다. ②아이패드로 그렸기에 망정이지, A4용지로 그렸으면 바닥에 대동여지도를 만들게 된다. ③중간에 멈추면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

⑦10개년 기출문제 풀어보기

1기와 2기 사이의 방학에 10개년 기출문제 풀어보고 인증하는 스터디를 했다. 나는 진짜 풀어보는 건줄 알았는데 스터디원 분들은 해당부분을 공부하고 백지복습을 하거나 타이핑해서 정리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되었다. 아무리 각자 교과서에서 보고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각각 달랐고, 목차구성이나 예시도 각기 달랐다. 다른 스터디원의 답안지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가면서 내 인사 목차 <구성력>을 높일 수 있었다.

4.경영조직론(강사명비공개→김유미, 55.40 → 57.97점, 2.57점 ↑)

→ 공부시간대비 효율 : 93.7%

강사선택의 이유(강사변경의 이유)

동차때 인사경조를 같은 강사님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30회 1번문제 오우치의 문화통제는 책에 전혀 없었다. 오우치는 Z이론만 있었다. 나중에 듣건대 A급이었다고... 이름에서 유추하여 베버 관료제 비벼쓰고, 나머지 이론도 만들어써서 인사 1문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인사경조 둘다 50점 짜리 문제를 통으로 가르쳐주지 않은 강사님을 내가 선택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고 스트레스였다. 때문에 인사와 같은 이유로 강사변경을 하였다. 김유미 강사님의 기본서가 다른 강사님보다 제일 두껍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 내가 동차때 들던 강사님의 기본서 대비 김유미 강사님의 기본서 두께가 두배라는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저걸 언제 다외움..

동차때 공부방법

대체적으로 인사와 같다. 다만 인사보다 시간투하를 더 했다. 비벼쓰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예때 공부방법

① 개념도식 메모리카드의 활용 ②실강 수강 ③복습 위주의 공부법 : 인사와 같다

④이해 위주의 공부방식

인사와 같은 듯 달랐다. 인사보다는 암기를 더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단순 암기로는 대체 학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었다. 경영학의 아버지님 버나드.. 왜 아버지인지는 공부하다 알았다. 참 많은 학자들이 버나드 이론을 기초로 하여 파생이론을 만들었다. 즉, 버나드의 이론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 뒷 이론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 암기 자체가 어렵다. 너무많아서. 심지어 나는 두문도 잘 안맞는 케이스. 이해를 위해 <빠른>회독이 아닌 <정독>의 방식을 활용했다. **점수가 낮았던 이유는 공부 방식의 문제보다도 다른 문제가 있었다.. 뒤에 이어질 목차에 링크된 <답안지 열람 후 복기>에 나와있다.**

⑤질문창구의 적극활용

아무리 내가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려 해도, 문언만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매주, 달려가서 질문했고 오죽하면 김유미노무사님이 어느날 나한테 "ㅇㅇ씨죠?" 하는 질문을 하셨을까...(내 질문의 맥락과 답안작성의 스타일이 일치하여 유추가 가능했던 것 같다.)

⑥마인드맵 그려보기

김유미 노무사님이 주신 방학숙제는 경조가 아니라 인사였는데, 인사를 하는 김에 경조도 해보았다. 장단점은 인사와 동일하다.

31기 2차시험 열람 후 복기, 과목별로 느낀점

	<p>31기 공인노무사 2차 복기(답안...)</p> <p>노동법 : 64.35점 노1(15page). → 환산점수 : 61.70 1-1 저성과자 통상해고 I. 논점의정리 ...</p> <p>blog.naver.com</p>
--	---

Section 2.

수험관련 의견, 추천 공부방법

모의고사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적 의견

모의고사 등수 : 중요하다

중요한 이유는 ①**자신감**, ②**안도감**, ③**공부 방향성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등수가 전부는 아니다. 예를들어 나는 30기 행쟁을 약 61점을 받았는데, 모의고사는 항상 뒤에서 10등 정도였다. 또다른 예를 들면,,, 나.. 경조 못하지 않는다. 정말이다. 그런데 올해 점수는....ㅠ

모의고사 점수 : 중요하다

동차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3기가 끝난 방학 동안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하며 실력이 향상된다. (내가 그랬다) 그러나 유예 이상의 경우 모의고사 점수는 **최대-최소 점수를 예상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요하다. 크게 망한 경조를 제외한 전과목이 3기 모의고사 최대-최소 점수 내에 있었다. 경조는 모교때도 ~~본 적 없는~~ 점수가..

모의고사 응시 : 매우 중요하다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실전은 모의고사처럼 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모의고사 응시는 중요하다. 시간에 쫓기며 목차잡고, 현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제출한 모의고사의 피드백을 받아보아야 한다. 비록 전 기수 합격자의 코멘트라 교수님의 시각과 다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타인의 시선에서 내 답안을 검토 받는 경험은 꼭 필요하다.

온침반인 경우 모의고사 응시/제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내가 실감을 수감한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본인이 강제력 없이는 모의고사 응시를 놓치는 성격의 소유자라면, 거리에 관계 없이 실감/실영상을 듣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모의고사 복습의 중요성 : 매우 중요하다

동차때 마지막 1개월을 앞두고 급격히 이해도가 높아진 이유는 모의고사 복습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3기 모의고사에 주요 쟁점을 출제해 주신다. 모의고사 자체의 점수보다는, **모의고사 후 강의내용복습-강사님 모범답안 암기-현출이 훨씬 중요하다.** 모의고사는 <범위예습>을 잘 한 경우 고득점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실전은 전범위**이고, 매년 <불의타>가 나온다. 따라서 예습과 복습 중 하나를 택한다면 그것은 <복습>이어야 한다. (둘 다 할 수 있으면 베스트다)

모범답안의 벤치마킹 : 유예 이상이라면 매우 중요하다

우선 동차생의 입장에서는 이럴 여유가 없고, 당장 부족한 암기의 빈칸을 채워야 한다. 그러나 유예 이상이라면 어느정도 답안 작성연습이 되어있을 것이다. 모든 강사님이 모범답안을 선정하고 프린트물을 나누어 주시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말 잘 쓴 답안을 보며 취할 것을 취해야 한다. 행정은 사실 판에 박힌 답안인 경우가 많아서 그 중요도가 덜하지만, <인사, 노동법> 이 두 과목은 모범답안의 벤치마킹이 정말 중요하다. 즉, <구성력>이 중요한 과목일수록 모범답안과 나의 답안을 철저히 비교하고, 내가 왜 모범답안만큼 쓰지 못했는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나의 경우, <노동법>은 항상 모범답안에 비하여 <판례에 지나친 집착>을 보여 완급조절이 잘 안됐고, <인사>는 이론 서술의 정밀도가 크게 차이났었으며, <브리핑>에서 이해도가 덜 드러났었다.

추천하는 공부방법

노동법

① 단어장(앞서 서술) : 가장 큰 효과를 보았던 부분이다. 이동시간, 식사시간, 화장실 가는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

② 판례 전문 읽고 흐름 파악해보기 : legal mind 를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된다. 나처럼 두문이 맞지 않아 <통암기>를 해야 하는 경우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읽다 보면 나름의 패턴이 있다. 판단요소도 꼭 들어가는 몇가지와 나름의 순서 및 흐름이 있다. 어느 임계치를 넘어가면, 내가 생각하는 판단요소를 만들어써도 어느정도 실제 판례와 일치하게 된다. 1기와 2기 사이에 해보기를 추천한다.

행정

① 단어장(노동법과 같다)

② 논탈이 나기 쉬운 이슈끼리 엮어서 공부 : 앞서서 공부 방법에 서술하였다.

인사

①**내가 기업의 오너라고 생각해보기** : 오너라면 기업 발전을 위하여 어떤 인재를 채용할 것이며, 교육훈련에 어떤 기법을 쓸 것인지, 각각의 기법이 임원의 시각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생각보다 많은 암기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장단점..)

②**목차는, 상대방이 '임원'이고 내가 '보고자'라고 생각하며 짜기 : 주관식 답안지의 기본 컨셉은 <설득>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술해야 한다. 이 점은 직장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테지만, 직장경험이 없는 경우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 쉽게 말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예시.

임원 : 인재개발에 A가 좋다는데 어때?

보고자1 : 네 좋다고 합니다. A를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자2 : 네. 그럼 b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b는 A의 한 종류로, A의 대표적 종류는 a,b,c가 있는데, 각각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인재개발에는 b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입장에서는 **보고자2**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을 것이다. 인사 답안 작성도 이런 맥락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보다 설득력 있는 답안 구성이 가능하다.

③**10개년 기출문제 풀어보기** : 앞서 장점을 서술하였다.

④**도식 그려가며 공부하기** : 학자들이 노문에 도식을 활용한 이유는 읽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즉, **도식을 그리다보면 이해가 안가던 부분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 (기계적으로 그리면 안된다.) 도식을 이해하게 되면, 적재적소에 도식을 넣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또한, 도식을 그리는 데에도 시간은 소모된다. 많이 그릴 수록 빨라지고, 내가 가진 모양자의 어느 부분을 활용해야 가장 깔끔하고 시간소모가 적은 도식을 그릴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도식은 필수는 아니지만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돋보이게 할 수 있다.**

경조

①**개념암기** ②**섹션별 백지복습**

두 가지 모두 안해서 후회하는 부분이다. 경조는 암기에 더 치중해야 하는 과목임을, 시험결과를 보고 깨우쳤다. 인사와 달리 구성력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도리어 잘못 구성하면 비벼쓰기로 보인다. 암기, 암기, 또 암기하는 과목이다.

③도식 그러가며 공부하기 : 경조의 경우 인사보다 더 이론적 설명에 유의해야 하므로, 도식의 중요성이 인사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며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는 사유는 인사와 같다.

수면시간, 총 공부시간에 대하여

수면시간

나는 8당 5락이었다. 하루 8시간은 자야 머리가 돌아가는 타입이어서, 수험생치고 잠을 정말 많이 잔 편이다. (마지막 한달은 하루 7시간 정도 수면했다.) **꼭 잠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부시간

나는 순공시간으로 측정했다. 처음부터 갑자기 14시간으로 늘지 않는다. 동차때는 하루 4시간 하는 것도 버거웠다. 육아로 인한 버거움도 있었지만 <공부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 공부하는 그 자체가 힘들었다. 그렇게 하루 평균 공부시간이 3시간 → 6시간 → 8시간 → 10시간 이런식으로 늘어났다. 올해 본격적으로 하루 10시간 이상을 공부할 수 있던 것은 시험을 6개월 앞두고 부터이다. 그 전까지는 4시간 정도 공부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 2~3시간 정도 놀아야 다시 집중을 할 수 있었다.

총 공부시간(시작-끝) 보다는 순공시간이 중요하고, **순공시간 보다는 공부의 효율이 중요**하다. 모두가 아는 사실. 그러나 공부의 효율을 올리는 자체가 어려운 경우 결국 총 공부시간을 늘릴 수 밖에 없다. 또한, 불합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공부시간을 늘리게 될 수 밖에 없다. 자리에 앉아서 딴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부시간은 다다익선**이다.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확보하기를 추천한다. 과정이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 결과에 대한 승복도 가능하다.

여담. 2차 점수를 보고 '에이~ 공부 너무 많이했네' 라고 건방진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어차피 나는 수험생이었고, 그 시간에 공부를 안해봤자 잠을 자거나 핸드폰을 했을 것이다. 그럴 바에야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게 낫다.

나는 머리가 좋아

정말 가장 경계해야 될 생각이다. 이 시험 진입자는 대부분 자신은 공부하면 성취를 이루는 정도의 머리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도 그렇다. 문제는 그런 사람끼리 경쟁한다는 점이다. **내가 머리가 좋은 만큼 옆자리 앉은 사람도 머리가 좋다.** 그 중에는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좋은 사람이 있다. 300명을 뽑는다면 상위 100명은 그 중에서도 성취도가 높은 사람이고, 101~300등까지 나머지 <보통만큼 머리좋은 사람>의 싸움이다. 내가 100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반대로 등수가 오르지 않는다고 심하게 좌절하는 것도 위험하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라고 생각하기 위해 멘탈을 여러번 다 잡았다. 좌절하지 말자..

수험기간에 대하여

이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수험기간을 줄여서 생각하든 늘려서 생각하든 상관없다. 실제 수험기간에 상관없이 <합격이라는 결과>가 있다. 그러나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의 공부기간을 줄여서 생각하면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나의 부족함에 대한 좋은 핑계거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집중하지 않고 보내온 시간도 나에게서는 소중한 시간이다. 허송세월 하고 있는 것도 나고, 열심히 하는 것도 나다. 허투루 보낸 후 그 시간을 수험기간에서 빼서 생각하려 하기 보다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전체> 수험기간을 줄이는 것이 낫다.

예를들어, 합격수기를 보면 보통 <2차 시험날~불합격 발표날(보통 3개월)>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생유예의 수험기간이 1년 6개월이 가장 많은 이유가 이것이다. 그러나 <수험생>입장에서는 1년 9개월이다. 쉽게 말해 **공부는 1년 6개월 했지만, 고통은 1년 9개월 동안 받았다.** 이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고통을 받으며 이도 저도 아니게 보낼 바에야 마음 다 잡고 공부하는게 낫다. 합격하기 전 시점에 스스로 수험기간을 줄이지 말아야 한다.

필체와 필속에 대하여

필속은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나의 실수를 만회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가점요소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목차구성에 조금 더 고민할 수 있게 해준다. 답안 작성 중의 시간의

압박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다. 합격자 중에는 두 페이지를 통으로 엑스를 치고도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도 있었다. 이 **모든 여유는 필속에서 온다.** 혹자는 분량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 역시 맞는 말이다. **필요한 내용을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필속이 느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험생은 그렇지 못하다.** 필요한 분량보다 더 많은 분량을 쓰게 되거나 무익적 기재사항을 쓰게된다. 문제를 풀다가 논탈을 발견해서 당황하기도 하고, 가점요소를 쓰고 싶은 욕심도 가지고 있다. 무조건 많이 쓸 필요는 없다. 필요 없는 내용을 무작정 나열해 봤자 점수는 높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필속을 늘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나는 필속을 높이기 위하여 22년 1월부터 8월까지 3,552페이지의 답안지를 작성했다.** 손을 잃었지만, 필속을 얻었다. 내 필속은 처음부터 빠르지 않았다. 무엇이든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필체 :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

글씨 지적을 자주 받을 정도로 필체가 별로였다. 하지만 채점은 했으니까. 해석(??)은 되는구나 싶어서 속도 올리기에 더 집중했다. 결과적으로 교수님의 놀라운 해독능력(?)으로 점수에 지장은 없었다. **예쁜 글씨-느린 필속 보다는 못난글씨-빠른 필속**이 낫다.

Section 3.

육아와 공부 병행의 현실

육아맘, 육아파파에게

우선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한다.** 나이를 먹고 공부하는 만큼 챙겨야 할 것들이 많고, 책임져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 그만큼 스트레스요소도 많고 실패 했을 때의 두려움이 너무 크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냥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빨리 붙어서 주변 사람이 힘든 시간을 줄여 주어야 한다.** 나 역시 아이 때문에 많은 날을 울며 공부했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며 공부마저 할 수 없는 출산 초반의 현실에 극심한 우울감을 느꼈다. 육아휴직과 동시에 공부를 시작하리라 결심했던 무지한 나를 많이 원망했고, 나를 잃었다는 생각에 이성을 놓기도 했다.

동차 공부와 육아

나는 동차때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해(대기를 걸었지만 되지 않았다.) 2차 시험을 보는 그 날까지 **아이를 안고 공부해야 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현출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때만 해도 아이가 어려 3시간에 한번씩 분유를 먹었으며, 식후 1시간 내로 대변을 보았다. 시도때도 없이 울어 30분 이상 집중을 기대하기 어려웠다.(30회 2차 시험을 마쳤을 때, 아이는 10개월이었다.) 이게 육아휴직맘의 공부환경 현실이다. 직장병행보다 공부시간은 더 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사실상 시간이 더 나지는 않는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남편의 숭고한 희생을 담보한 경우의 이야기. **배우자가 전적으로 희생해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직장병행이 공부시간이 더 많이 확보된다.** 혹, 육아휴직과 동시에 공부를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현실을 미리 알고 시작했으면 한다. 그러면 덜 슬플지도...

유예시절의 육아

30기 2차 시험이 끝나고 두어달 후,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21년 12월에 잠시 복직하여 다시 휴직하는 약 한달 보름정도의 기간동안은 육아+공부를 병행하던 시기 만큼의 시간만 확보되었다. 그러나 22년 1월부터는 전업으로 준비하는 사람에 준하는 공부시간이 확보되었다. 이 역시 배우자의 온전한 독박 육아가 전제 되어야 한다. 다행히 나는 나의 공부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이해해주는 남편이 있었다. 하지만 <준하는>시간이지 <전업>만큼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아이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9시에 등원하는 때까지 먹이고, 씻기고, 챙겨주어야 한다. 남편이 퇴근한 후 1시간은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아이를 씻겼다.(이 조차도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정신적으로 힘들어 할 것이 보였다.) **하루 4시간 정도는 육아로 인하여 공부를 하지 못했다.** 쉽게 말해 <알바병행>과 비슷한 여건. 마지막 1개월을 남기고는 이 4시간조차 남편이 온전히 아이를 보아주어 공부시간이 전업만큼 확보되었다.

각오하고 시작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가 전적으로 도와주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금 더 공부시기를 늦추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 배우자가 수험진입을 반대한다면 배우자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수험생활은 그 자체로 마음이 힘들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정서적 지지 없이 육아를 하며 공부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물리적인 지지는 그 다음의 문제일 뿐이다.

중간에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나의 경우 중간에 **아이가 코로나로 1주일, 폐렴으로 3주를 앓았다.** 공부시간이 확보 되지 않는다는 압박감과, 아이에 대한 죄책감, 점점 우울해져만 가는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찾아지는 다툼 등을 감내해야 한다. 아이용 유튜브를 주로 활용하여 공부시간을 확보하는데, **아기의 지능과 나의 지식을 맞바꾸는 기분이 든다.** 지금 생각해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로웠다. **2차 시험이 끝나고 남편과 아이가 눈에 띄게 밝아져서** 너무 미안했다.

수기를 마치며, 과거의 저에게, 꼭 붙었으면 좋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 말을 전하는 글입니다. 다소 강한 어조로 작성한 점 언짢으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수험생 분들 꼭 합격하시어 필드에서 뵙고 싶습니다.

인쇄하기

취소